





## ■ '직지'의 고단한 여정

1377년	1877~1900년	1900년	1950년	2001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	풀령 드 플랑시 주니어 프랑스 최초 대공사가 입수	미리 세계박람회 한국관 전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북제복 청주 고인쇄박물관 전시중

1911년  
파리 시립 도로우 경애청사에서 일리 베베르에게 판매

# '직지' 복원 이뤄야 진정한 귀향

## 한국문화사의 쟁점

우선 한문 오부터 정정해야겠다. '직지심경'은 둘린 말이다. 불사(佛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지는 경(經)이 아니라 요절(要節)이다. 따라서 '백운화초록불직지심요절'은 (白雲荷草錄不直之體要節)이라는 문장을 너무 길다면 '직지심체요절' 혹은 '직지'라고 불러야 한다. 모름지기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게 관심의 시작이다.

### (글 싣는 순서)

1. 인쇄술 기원과 무구경
2. 금속활자의 발명국 다툼
- ❸ 직지의 고단한 여정
4. 조선 문학의 꽃, 활자
5. 채풀과 종이
6. 서사의 기원
7. 복원품을 보는 눈
8. 창경 범동사
9. 한·중·일 전적 교류
10. 문현 유산의 보존 과제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극귀珍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불과 같은 전면에도 보통 이를 보관한 개인 서가에 먼지와 텁텁한 냄새가 있다.

한 열성인 재벌 서재하자 그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맙다.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

하던 박병선씨는 당시 유니스도가 지원한 '세계 도

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 한국 작품을 찾

다 직지를 발견했다. 현대는 세계 최고(最)급

수작으로서 직지에 놀랐다. 그는 당시 유

작지를 직지로 봤다. 그는 당시 유

작자를 직





## 종이, 개인 발명 아닌 집단창작품

### 한국문화사의 쟁점

종이는 서기 105년에 중국 한나라의 천문이 발명했다고 배웠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중국 사천성에서 천문 이전인 BC179~BC87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실물이 출토되면서 천문설은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이 종이를 발명했다는 기록은 절문 자체에 대한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연 천문은 종이를 발명한 것인가.

#### 〈글 싣는 순서〉

1. 인술 기원과 무구경
2. 금속지자의 발명과 디拊
3. 적지의 고단한 여정
4. 조선 문화의 끝, 활자
5. 책과 종이
6. 서사시 기원
7. 북원을 보는 눈
8. 장·달반자
9. 한·중·일 전적 교류
10. 문헌 유산의 보존 과제



한지로 만든 활판 책의본.

◇종이의 발명자=지금까지 출토된 매장·분화재 중에서 천문 이전의 종이로 판정된 것은 102년에 이른다. 연대는 대체로 BC179~AD87년이다. 재료는 마지(麻紙) 5종, 나마지 5종은 경제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살펴보았다. 천문이나 저자는 기록은 실물도 2종이나 있다. 문헌 기록도 있다. 고문학의 기록 중 종이가 언급된 것으로는 16건이지만 이것이 모두 16건이라는 이유는 노에고치의 속으로 만든 견식이다. 이미 이 시절 누에고치를 이용한 종이가 있었던 것이다.

종이 실물이 출토되면서 천문의 종이 발명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종이를 발명했는가는 절문 자체가 이를 알아가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종이의 제작 과정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누에고치는 누에고치를 옷감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질 사이에 있는 접액질을 제거하기 위해 넓적한 대발에 담아서 물기에서 방출해 두드리면서 빨아내면서 빨아내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져 나올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섬유구조가 대발에 남아서 뒤에서 미세한 마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종이 바로 종이의 원조가 된다. 종이 자체는 종이 바로 종이 바로 종이의 원조가 된다. 아마 누에고치를 두드려 빨아낸 옷감을 만들던 기술자 중 누군가는 대발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빛빛에 말리거나 어느 날 대발에 남아온 종이로 이어울렸을 것이다.

그리면 그 틈을 놓은 일꾼이 했는지는 그 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종은 한 개인의 발명품이라보다는 절문의 문학적 창작품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따라서 천문은 발명자였기보다는 종이의 혁신적 개량자로 보는 쪽이 옳다. 천문 이전까지는 제지 술이 미숙해 종이가 보관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당시 조경의 물품 담당자였던 천문은 제지술을 개

량해 고급감을 대폭 늘리면서 종이를 대중적으로

### 천문 이전의 종이 실물 잇따라 발굴 200년경 한반도 전파되 획기적 발전 양지에 밀린 무공해 한지 부활 기대

단복을 제료로 삼은 안피지(蘆皮紙)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종이 천문이라는 종이로는 3종 중에

서 저작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된다. 유통으로 보면 절의 차이는 글방 드러난다. 죽지는 섬유에 유해한 목소(木素) 성분이 있어서 쉽게 삐죽해졌다. 젖어버리니 수명이 짧아졌다. 일본 안피지는 죽이에 비해 가볍고 반질거리며 수명이 긴 편이나 흔들리거나 날개를 놓는다.

이와 비교해 덕종이는 가장 안정감이 있는 종이다. 종이 섬유가 걸고 고정하고 오래 가는데 해로운 단복을 제작하는 경우에 부딪치고 우리로 만들면 가장 품위 있어 보이기도 덕종이다.

서명용의 '보물제작서'나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선고'에 보면 '고려지가 색상이 회고 견인하고 매우 깊고 윤택하고 두껍고 질기다'는 칭찬이 나온다. 한국의 저자는 고려지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일본에

하지만 전통 한지는 그 나름의 우수성을 아직도 적지 않아 간직하고 있다. 양지는 제조과정에서 화학처리가 불가피하다. 표면 가공을 위해 각종 포백제와 청구제를 더함으로 넓기 때문에 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통 한지는 그 나름의 우수성을 아직도 적지 않아 간직하고 있다. 양지는 제조과정에서 화학처리가 불가피하다. 표면 가공을 위해 각종 포백제와 청구제를 더함으로 넓기 때문에 언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통 한지는 그 나름의 우수성을 아직도



조영진  
(경남대 교수)

### 국제 문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 개막

4일까지 62개국 400여명 참석  
문소리씨 캐릭터 사회 맡아

시코의 국민여배우 린리아 아라곤 등  
62개국에서 400여명이 참가 예정이다.  
한국총회에서는 열희배우 문소리씨  
가 캐릭터 사회자로 출석하고 인상기  
세는 다른 39과 함께 최종 선언문을

제3차 국제문화전문가 단체(CCD)  
총회 조직위원회 공동체장위원장인 강

신길·김지윤(가) 위원회부터 나흘간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에서 열

린다. CCD는 국제문화전문가 단체(C

onvention for Cultural Diversity)의 약

약자로 1997년 문화예술을 자주주제로 대

상으로 위탁하고 그것을 막고 문화 다양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된 국제연

대기구. CCD에는 전세계 60여개국

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으

며 총회는 그동안 캐나다와 프랑스에

서 각각 3년 간격으로 열린 바 있다.

주최 측은 총회 마지막 날인 6월

'서울 선언문'을 제작할 계획이며 총

회 참석자들은 문문장을 방문해 한

번도 평화를 위한 특별선언도 발표

송세영기자

영적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여! 당신을 기적의 「샘물」 가로 조대합니다.



처자 오도석 목사  
-태권 수설정회의 단임-

### 화제의 신간

### 21C판 사도행전



한단 남이  
자 부처로 맞서는 경 신례원의 공개 입체에서 찾았던  
비단의 '샘물' 기록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기록은 신례원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 A5판의 사본은 책으로서는  
수만장 염증들을 적용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과 '샘물'인 말씀을 통하여 티끌이 한다.

이제 이 대님을 찾고자하는 열중, 철저하는 열중,  
철철한, 열중을 펼쳐야 한다고  
김대미 신천의 빛 구원의 열중을 나르고자 한다.  
이 책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와 라마와 여로와 낫시의 역사가 뇌물하기에 본다.

저자 송세영 목사

비전복음전사

저자 송세영 목사







베이징 도서관에서 조선 시대 책자인 '충무정운(洪武正韻)'을 조사하던 중 양안원(養安院)이라는 장서인에 놀랄 적이 있다. '양안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조선의 악탈 전적을 허사받은 일본인 신하의 장서이다. 1476년 조선에 간행된 목판본인 '충무정운'은 임진왜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어떤 경로를 거쳐 베이징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 한국문화의 쟁점

'충무정운'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서작들이 고향을 떠나 이웃나라로 흘러들어갔다. 그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중국 대륙을 넘나들게 되었까.

◇종교과의 교류, 수출한 책도 많았다.

중국의 책이 처음 들여온 것은 기원 전 후, 즉 삼국시대 초기인 듯하다. 기자가 고

조선에 들어올 때 시, 시, 예, 음 등과 관련한 책을 갖고온 것

이후로 원나라가 256년에 '논어·효경·역경' 등을 일본에 전해준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이미 책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당시 전래, 불교의 유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72년에 '진(秦) 나리에서 고구려에 불경을, 565년에는 진(陳) 나리의 문경(文鏡)이 신라에 불교의 경론 1700권을

보냈다. 백제 침략왕, 신라 농지왕 때 불경 수입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많은 전적이 수입됐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교류가 일방향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종족으로 충돌했다. 고구려가 23년에

'봉역도(封域圖)'를 당나라에 보낸 것과 책 수출의 시작,

신라는 950년에 불경을 당나라에 보냈고, 고려는 950년에

중국에서 이미 유실된 '별서학경(別序孝經)' 등을 후주(後周)에 보냈다. 961년에는 전례사교의(天台四教義)가 오

- 〈글 싣는 순서〉
- 1. 인쇄술 기원과 무구경
- 2. 금속활자 별명국 다툐
- 3. 직자인 고단한 어정
- 4. 조선 문화의 꽃, 활자
- 5. 재조판과 종이
- 6. 서사의 기원
- 7. 북원을 보는 눈
- 8. 장정 발달史

### ①한·중·일 전적 교류, 문헌 유산의 보존과제



일본 쓰시마섬의 개인 자료관인 반소인에 소장된 조선 시대 초기 통신사 행렬도. 당시 일본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들은 유교 전통과 의사, 역사 등을 전해온 척도였다.

## 日, 임란뒤 술한 악탈... 한국에 없는 '완질'만 104종

## 中과는 우호적... 北宋때 128종 求書목록 보내 오기도

월국에, 대장경은 4차례 걸쳐서 북송에 역수출됐다. 잇따르는 내전으로 구중한 책들이 인重点领域는 중국은 북송 때인 1091년에 128종의 구시(求書) 북목록을 고려에 보낸 전적 수임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게 오간 책들은 규장각에 있는 중국 고서 6600여종, 국립중앙도서관의 2000종 속에 남아있다. 베이징대학 도서관 역시 한국의 고려전 300여종을, 대만은 457종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의 책 교류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북송 때의 시인 소식(소동파·1036~1101)이 고려에 하사한 서적이 거란에 유입된다는 이유로 책 유출을 금지하는 상황을 미쳤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무너졌다.

조선에 출발한 일본군 장수와 증군 승려들은 조선의 전

책을 무수히 악탈해 갖고, 포로들을 동원해 책을 떨사하기

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출발한 일본의 장수는 36명, 이들의 행적을 추산하면 악탈 분야의 소재지 라이 가능한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을 거쳐 봉화문고, 천리마, 국화도서관, 왕궁관문고, 서장부, 내각문고 등으로 흘러들어갔던 결국 숨증 38년인 1712년 '정비록·간언록·여성설' 등 국가 기록과 관련 있는 전통의 일본 수첩이 길지마다 이른다. 일본 경감기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진 전적 수탈은 아직 그 규모자체 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출된 책 가운데는 국내에 없는 화귀본이 많다. 동방문고가 소장한 고려본 '금반야마리밀다경(金陵夜叉磨多經)'이나 대체로 고려권본 '대방광불화엄경 이세문풍자이(大方廣佛華嚴經世間品二)', 국화도서관의 '개미자본·장도호주증(算豆互註乘經)'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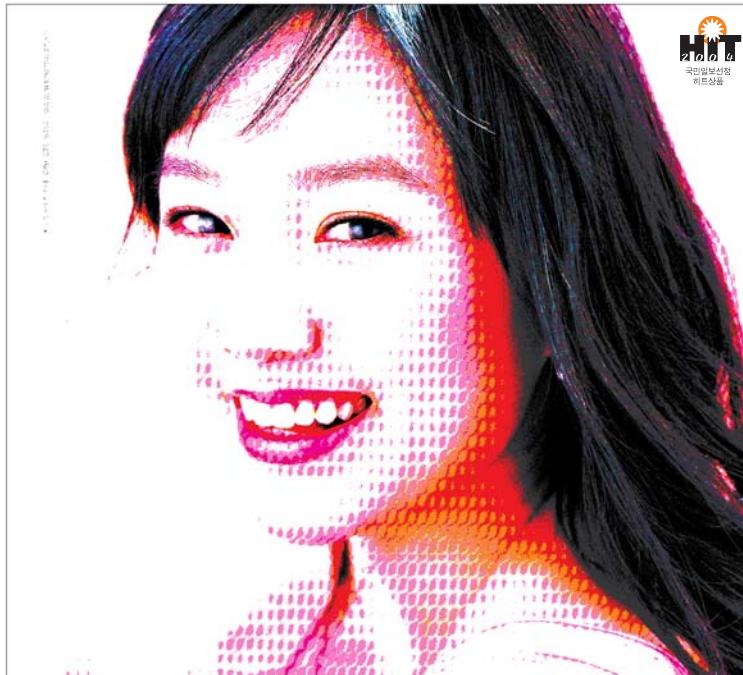
더구나 이를 고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이 많아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한반도에는 아래에 소개한 넌질(南紙·여러 권으로 한 짐을 이루는 책에서 빠진 책)뿐인 판본이 일본에는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현제 일본의 15개 도서관에는 한국에 없는 완질(完紙)이 104종이나 소장되었다.

반면 일본에서 수입된 전적은 많지 않다. 근데 서구 문화가 유입되기 전부터 일본은 출판 문화가 전진적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대에 와친이 불경을 들여온 것을 제외하면 1600년 '봉토기(鳳土記)'와 1811년 '미개시조(李開濟抄)' 정도. 일본이 봉건 사회에서 명성의 자본주의 개혁으로 들어서는 19세기 후반에 되면 수입이 비교적 활발해지는 데 1880년 수신사 김종집이 들어온 외교서 '사의조(察微錄)' 등이 대표적이다.

1966년 한민당이 조선하면서 일본 정부는 16종 852종을 반환했다. 분량도 만족스럽지 못한 뿐더러 귀중본은 모두 제외돼 자료적 가치는 거의 없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빼앗기기만 하고 받아온 것은 미미한 게 한·일 전적 교류의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정신적인 교류에 의한 하사와 한반도에 정해야 하지만 악탈과 수탈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조형진  
(강남대 교수)



파우더처럼 가볍게, 트윈케이크처럼 커버력있게~

마몽드 파우더팩트

마몽드 파우더팩트 화장실 커버리

• 화장실 커버리 1ea (화장실 커버리 1ea)

\* 트윈케이크UV SPF50

Mamonde

## 미디어 칼럼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지 10년이 되었다.

전화모델을 통해 사전 한 접 밭기 위해 몇몇 책이 기획되었지만 그다음 같은 책은 번역본과 같은 벌써 강산이 변할 정도의 세월이 지나 요즘은 아예 인터넷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동안 디자이너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너무나 익숙해버린 문화

유니케이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템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은 스트레인간의 존엄성 위협하기도

일, 음란물 풍수, 인터넷 중독, 자살 사이트 증가와 같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들은 기본의 권리함과 자유롭신의 혜택을 얻은 대가로 보기에

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너무나 해로운 중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매일 중 84%

가 스트레인간의 꾸준히 즐기는 행위를 주제로 보고 있다. 오죽하면 벌 게이츠도 '스팸대입과의 전쟁'을 선보였을까 싶다.

도 중학생 중 27.5%, 고등학생 중 23.8%가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한다.

인터넷에 과도하게 물들어 정신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으나 자살 사이트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밖에 음악 파일(MP3), 동영상 파일, 프로그램 파일의 불법복제와 부분별한 배포 행위, 음란물 유통,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미디어 가능성

아날로그 문명 속에 축적되어온 우리 삶의 질서가 디지털 문명에 적절하게 편입되리로 보이는 문화

총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미디어 발달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미디어가 '매개체'라는 뜻을 봄 때, 궁극적으로는 '매개' 없는 매개체'가 될 때 그 정점을 되짚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간의

몸속에 간단한 힘 하나 넣으면, 굳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글 쓰지 않아도 상대방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미디어'

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요즘 성형 수술이 유행하는 세상인데 그 때가 되면 몸에 힘 하나 넣는가 아무 떻지도 않게 받아들일 시대가 될 테니까.

이인희(경희대학교·언론학)

